

“상원사 적멸보궁 속칸 15세기 다포식 목조건물”

조계종 문화재조사단 '현존 最古 발표...국보지정 추진'

강원도 상원사 적멸보궁(도유형문화재 제28호)은 보통 법당과 달리 걸칸과 속칸이 벽으로 구분된 '겹집'이고, 속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다포식 목조건물로 밝혀져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불교문화재조사단(단장 일철스님, 이하 조사단)이 오대산 상원사 적멸보궁의 건물 내벽과 천장을 조사한 결과 최소한 15세기 전기로 추정되는 목조 양식의 건물이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삼분두, 기양, 공안 등 공포의 형태 △기둥의 배흘림 모양 △담집 뒤쪽 우물반자의 조각 단청 △기둥창 창방 뿔목의 초각 등이 조선 전기 건축양식과 일치한다고 설명한 뒤 “가장 오래된 다포 건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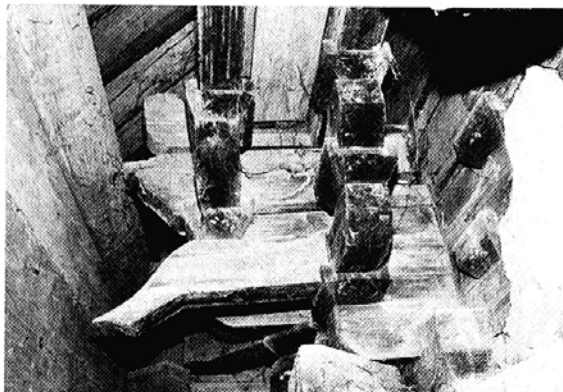
다포식이란 공포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연결한 것으로 기둥 위에만 공포를 짠 것은 주심포식이라고 부른다.

남한에 남아있는 조선 초기 다포식 건물은 봉정사 대웅전(보물 제55호), 개심사 대웅전(보물 제143호), 서울 남대문(국보 제1호) 등 3체이며, 각각 국보와 보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속칸과 걸칸 이중구조인 상원사 적멸보궁은 지금까지 걸칸만 확인된 채 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됐을 뿐이다. 걸칸은 1874년 중건공사 때 중수된 것으로, 당시 추위를 막기 위해 건물 외벽에 새로운 건물을 둘러쳐 지었

다. 적멸보궁 속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다포식 목조건물로 밝혀짐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은 적멸보궁 '속칸'에 대한 국보 및 보물 지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상원사 적멸보궁은 신라 장왕이 직접 석가모니의 사리를 이운해 모신 곳으로 봉도사, 법흥사, 정암사, 봉정암 등과 함께 5대 적멸보궁으로 꼽힌다.



◇상원사 적멸보궁 속칸에서 발견된 '내진공포'. 삼분두, 공안, 기양등 조선초기 다포 양식이 완연하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이월종씨의 '생활속의 중도'

김병중-이월종-김원숙 3인展

화폭에 담긴 중도의 세계

13일까지 조화랑서

자연과 중도 그리고 생명의 세계를 화폭에 담은 김병중, 이월종, 김원숙 화백이 한데 모여 서울 서간동 조화랑에서 13일까지 '서울, 제주 그리고 뉴욕'전을 연다.

간결한 선과 역동적인 필체로 대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해온 김병중은 이번 전시회에서 닥종이판에 먹으로 그린 '생명의 노래' 연작을 출품, 파도처럼 굽이치는 약동하는 생명력을 전한다.

김원숙은 화사하고 밝은 색채로 그린 바다위에 떠있는 외딴 섬 등을 통해 몽환적인 분위기와 따뜻함을 전해준다. 세 작가의 그림은 비관적이거나 파괴적이지 않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충만한 아름다움이 화폭에 가득하다. 그래서 전시장에 가면 너무나 할 것 없이 마음이 화폭에 옮겨온 이월종, 그는 바다

에서 고기잡는 배의 모습에서부터 자동차, 집지키는 개 등 생활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상들을 소재로 한 '생활 속의 중도' 시리즈를 내놓고, 중도(中道)를 지키며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흥취를 자아낸다. 또 김원숙은 화사하고 밝은 색채로 그린 바다위에 떠있는 외딴 섬 등을 통해 몽환적인 분위기와 따뜻함을 전해준다. 세 작가의 그림은 비관적이거나 파괴적이지 않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충만한 아름다움이 화폭에 가득하다. 그래서 전시장에 가면 너무나 할 것 없이 마음이 화폭에 옮겨온 이월종, 그는 바다

'아름다운 불교미술전'

고도사에서...내달 20일까지

불화, 불상, 범종, 탑등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불교미술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미술전이 열린다. 서울 종로구 관훈동 고도사는 12월 20일까지 '아름답고 아름다운 불교미술'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고려 '수월관음도', '금동오층소탑', '석조불두', 통일신라 '금동약사여래입상', 조선 '동자상' '업경대', 중국 청나라 '보살행화' 복제 '석조보살두상' 등 유물 2백여점이 선보인다. 특히 중국역사박물관 연구위원 이



◇고려시대 수월관음도(부분).

자연박사가 전시된 중국 불교미술품을 고증해 이번 전시회의 품격을 더욱 높였다. (02)735-5815

'우주와 소림자의 세계'

16일까지 노영호 개인전

삼라만상에 담긴 불성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전시회가 열린다. 노영호 화백이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공평아트센터에서 '우주와 소림자의 세계'를 주제로 개인전을 마련한다. '극대-소림자' '극대-우주' '조화' '중도' 시리즈 60여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에서 노씨는 서로 크기는 다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세계는 동일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그려내고 있다. (02)733-9512

봉정사 대웅전 해체보수

문화재청, 2002년까지

記文 존재여부 확인기대

현존하는 국내 최고의 목조건물(극락전)이 보존된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 대웅전(보물 제55호) 전면 해체 보수 공사 방침이 결정되면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 김동형 교수(연세대) 등 15명으로 구성된 봉정사 대웅전 및 극락전 보수 기술단 2차 회의를 갖고 대웅전을 오는 2002년까지 완전 해체 보수하기로 결정했다.

대웅전 주 기둥 전체가 건물 서편으로 기울고 뒤물림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데다 서까래등

지붕 부위를 구성하는 목재 부식상태가 심각해 부분 보수로는 항구 보존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대웅전 전면 해체 공사에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기문(記文)의 존재 유무다. 건립 유래와 경위, 보수 전력을 기록한 것이어서 조선 초기 건축물로 추정하고 있는 대웅전의 정확한 건립시기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2년 극락전 보수 때 이 같은 기록이 발견되면서 극락전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보다 오래된 목조건물로 입증된 전례가 있어 최고 기록 여부와 극락전과의 상관관계 등이 밝혀질 수도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정방사 목조관음상 조선숙종대 제작"

정영호교수 복장기 발견

충북 제천 정방사(주지 석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복장기가 나와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추진중인 성보문화재 조사사업 일환으로 최근 정영호 교수(한국교원대 박물관장)가 조사를 벌인 결과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 복장기를 새롭게 발견했다.

복장기는 가로 62cm, 세로 80cm의 한지에 '康熙二十八年歲次己巳之年造佛像(강희이십팔년 세자기사지연조불상)'이라고 기록되어, 지금부터 310년전인 숙종 15년(168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영호 교수는 "17세기 무렵에 조성된 불상과 보살상은 대부분 유점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며 "목조관음보살좌상의 제작연대가 밝혀진 만큼 문화재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鐘이란 무엇인가...왜 만드는가

연극 '천년보다 깊은'...내달 5일까지

극단 우림의 '천년보다 깊은'(번영극 작, 민복기 연출)에는 종공(鐘工)의 '분별심'과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법으로 증득하는 '깨달음'이 서로 조응하는 공간이 있다. 국보 29호 에밀레종(성덕대왕신종), 그 신비의 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신라시대 종쟁이들의 이야기를 엮은 이 연극은 산 어린이를 필 필 끓는 쇠물에서 넣어야 진짜 소리를 얻는다는 늙은 종공 박부부

(전무송 분)와 식구와의 갈등이 중 심축이다. 무대는 산중작업터. "구리 50만 근을 써 고을 입구 남근석보다 못한 종을 만들었다"며 종 만들기 41년 경력의 박부부는 탄식을 한다. 종이란 무엇인가? 그 의미는 경생을 종에만 바쳐 온 분별심 가득 찬 예술지상주의자 박부부와 융화를 강조하는 휴머니스트 박종익(전국한 분)의 갈등을 통해 예술을 통

해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를 암시한다.

결국 혼신의 힘을 다하고도 종을 짓지 못한 박부부·박종익을 신라의 종쟁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거대한 에밀레종이 무대에 홀연히 나타나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갈등, 이별, 배신, 암투 등 세간의 사뭇한 정에도 불구하고 소리만 듣고도 깨달을 수 있다는 '일승일음'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온 것은 불법이 널리 퍼졌음을 말해준다.

12월 5일까지 세실극장.

에밀레종 내년 개천절부터 타종

타종 재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돼 온 성덕대왕신종(일명 에밀레종, 국보 제29호)의 신비로운 종소리를 내년부터 한차례씩 들을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2000년부터 매년 10월 3일 개천절 한낮에 경북 경주시 국립박물관 경내에 있는 신종을 타종하기로 결정했다. 타종 시기를 가을로 정한 것은

이 때가 춥지도 덥지도 않아 타종할 경우 종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화재청 강경태 유형문화재과장은 "종을 몇 번 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관례에 따라 서른세 번 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통도사 승가대학 학인 모집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살아 숨쉬는 불지종가 통도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처문반 00명
사집반 0명
- 입학자격** 조계종승려로서 해당학과에 적격한 스님
- 구비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주민등록증사본(양면) 2매
3.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2매
4. 은사스님 추천서
5. 건강진단서
- 준비물** 대가사, 오조가사, 발우, 장삼, 범명도장
- 전형방법** 사진 3x4 (대가사 또는 오조착용) 3매
서류접수후 면접
- 교과과정** 내전 - 전통강원의 기본 교과 과목
외전 - 컴퓨터, 서예등 학인의 필요에 따른 특강실시
- 문의처** ☎ (0523)383-2363(승가대학) 382-7182(종무소)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승가대학 주지 신 허 학장 지 안



관음성지 보문사 해수관음상 조성 지명 공모

서해안 최대 관음도량인 보문사에서는 한국조각계의 중진인 조승환(동국대), 유종민(중앙대), 원인중(이화여대) 교수 등 3인을 지명공모하여 한국불교 전통 관음보살상의 아름다움과 이 시대의 예술성을 조화시켜 중생들의 신앙의 귀의처가 될 해수관음상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음성지에 봉안할 해수관음상 조성불사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등참문의** 전화 (032)933-8271~3 팩스 (032)933-8270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29번지
- 등참계좌번호** 국민은행 252-01-0003-040 (예금주 보문사)
우체국 100479-0083202 (예금주 보문사)
지로번호 7626131

대한불교조계종 보타 낙가산 보문사 주지 향 적